

# 서울정책포커스

2007. 5. 7 제24호

##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수요조사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목 차 >

요약

1. 조사개요
2. 순수공연예술 선호도 및 관람경험
3. 향후 방문의향 및 희망 개선사항
4. 정책적 시사점

## 요 약

21세기 산업 패러다임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문화산업 부상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각 나라와 도시는 문화산업을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문화콘텐츠를 10대 전략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문화산업을 중요시되는 가운데 서울시도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효율적인 문화정책을 통해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함과 더불어 동북아 문화 및 경제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문화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용행태와 의식을 파악하고 그 수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순수예술공연에 대한 선호도는 영화나 스포츠, 대중예술공연 등에 비하여 낮았으며, 응답자의 34.1%가 지난 1년간 한번도 순수공연예술을 관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장르별로 보면, 응답자의 약 70~80%가 연극과 뮤지컬을 연 1회 이상 관람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오페라와 발레의 경우는 60% 이상이, 클래식 연주의 경우는 50%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관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순수공연 관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순수공연예술 관람 확대를 위해서는 공연내용의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입장료의 가격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문화공연이 일종의 경험재로서 반복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교육 등을 통해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제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순수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이 있어야 하며, 관람기회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가격대의 폭넓은 공연과 무료공연 제공이 필요하다. 또 순수공연예술 관람이, 많은 경우 여가활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락시설과 상업시설을 겸비한 문화복합시설을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1. 조사개요

### ○ 조사목적과 방법

- 서울지역의 순수공연예술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서울시민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향후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장래 수요를 추정하고자 함.
- 본 조사는 순수공연예술의 수요에 대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으며, 먼저 수요의 양적인 측면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질적 조사로 보완하였음.
- 설문조사는 2006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조사원을 통해 서울시내 전역에서 서울시민과 일부 시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순수공연예술 관람경험을 가진 시민들에 대한 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 관람객 200여명을 포함하여 총 1,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1,108부가 회수되었음(회수율 92.3%)<sup>1)</sup>. 이 중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아닌 경우, 응답연령층이 아닌 경우,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등 50부를 제외한 1,058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음.
- 본 설문조사는 크게 <표 1>과 같이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음.

---

1) 본 설문조사는 서울의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수요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대상을 서울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공연관람 가능권인 경기, 인천시민 일부를 포함하였으며, 순수공연예술의 장르별 선호도와 실제 공연관람 경험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 관람객을 설문대상에 포함하였음.

<표 1> 설문조사 설계

구분	조사항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답자특성</li> <li>지난1년간 순수공연예술 관람료 총액</li> </ul>
문화오락 장르별 관람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오락중 선호장르</li> <li>지난1년간 각 장르별 관람회수</li> </ul>
순수공연예술 관람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람경험유무</li> <li>주로 이용한 시설</li> <li>순수공연예술 세부장르별 관람회수</li> <li>관람이유 / 비관람 이유</li> </ul>
향후 공연문화시설 방문빈도 및 희망 공연유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1년간 공연예술시설 관람예정회수</li> <li>선호하는 순수공연예술 세부장르</li> <li>향후 1년간 세부장르별 가격대별 관람희망회수</li> <li>순수공연예술 관람관련 개선희망사항</li> </ul>

○ 응답자의 특성

- 성별

여성 587명(55.5%), 남성 470명(44.5%)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연령대

20대 이하 52.0%, 30대 27.2%, 40대 14.2%, 50대 5.9%, 60대 이상 0.7%로 구성됨.

- 결혼여부

미혼 632명(60.0%), 기혼 422명(40.0%)으로 미혼의 비율이 높았음.

- 학력

대졸이상 530명(50.5%), 대재 367명(35.0%), 고졸 141명(13.4%), 중졸이하 12명(1.1%)로 구성됨.

- 직종

대학(원)생 357명(33.9%), 사무/기술직 163명(15.5%), 전문/자유직, 전업(주부) 각 126명(각 12.0%), 경영/관리직 79명 (7.5%), 자영업 58명(5.5%)의 순이었음.

- 지역구분

서울강북동부 271명(25.8%), 서울강남동부 211명(20.1%), 서울강남서부 208명(19.8%), 서울강북서부 191명(18.2%), 경기 141명(13.4%) 인천 29명(2.8%)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응답자가 비교적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

- 개인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명(27.4%), 200만원~299만원 154명(15.1%), 300만원~399만원 118명(11.6%), 400만원~499만원 54명(5.3%)의 순이었음.

- 가구소득수준

300만원~399만원 189명(18.6%), 500만원~599만원 159명(15.7%), 400만원~499만원 150명(14.8%), 200만원~299만원 139명(13.7%), 600만원~699만원 95명(9.4%), 1000만원 이상 91명(9.0%)의 순이었음.

## 2. 순수공연예술 선호도 및 관람경험

### ○ 문화오락 유형 중 선호유형

- 순수공연예술, 대중공연예술, 스포츠, 영화 등을 포괄하는 문화오락 유형 중 가장 선호하는 유형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sup>2)</sup>, 영화 42.1%, 대중예술공연 24.6%, 스포츠 17.8%, 순수예술공연 15.5%의 순으로 나타났음(<표 2> 참조).
- 1순위 응답결과는 영화 53.6%, 스포츠 18.6%, 대중공연예술 14.1%, 순수공연예술 13.6% 순임. 영화를 제외한 스포츠, 대중공연예술, 순수공연예술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2) 1순위와 2순위 응답의 전체 합임.

<표 2> 문화오락유형 중 선호유형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순수예술공연	144	13.6	181	17.5	325	15.5
대중예술공연	149	14.1	366	35.3	515	24.6
스포츠	196	18.6	176	17.0	372	17.8
영 화	566	53.6	314	30.3	880	42.1
합 계	1055	100	1037	100	2092	100

○ 문화오락유형별 지난 1년간 관람횟수

- 문화오락유형별로 지난 1년간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순수공연예술의 경우 '무관람' 42.0%, '1회' 16.7%, '2회' 15.0% 순으로 나타났고, 대중예술의 경우는 '무관람' 36.7%, '1회' 22.9%, '2회' 20.4% 순이었음. 스포츠는 '무관람' 49.8%, '1회' 14.0%, '2회' 11.5% 순이었고, 영화는 '무관람' 5.4%, '1회' 5.8%, '2회' 6.6%, '6회 이상' 57.1%로 나타났음(<표 3> 참조).

<표 3> 문화오락유형별 지난 1년간 관람횟수 비교

구분	순수공연예술		대중공연예술		스포츠		영화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다	380	42.0	336	36.7	428	49.8	55	5.4
1회	167	18.5	210	22.9	120	14.0	59	5.8
2회	136	15.0	187	20.4	99	11.5	67	6.6
3회	83	9.2	84	9.2	73	8.5	97	9.6
4회	39	4.3	35	3.8	32	3.7	79	7.8
5회	18	2.0	19	2.1	22	2.6	78	7.7
6회이상	81	9.0	45	4.9	85	9.9	580	57.1
합계	904	100	916	100	859	100	1015	100

- 관람빈도별로 보면 영화, 대중공연예술, 순수공연예술, 스포츠 순으로 대중화 되어 있고, 영화와 나머지 문화오락유형들 간에 관람횟수 상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지난 1년간 순수예술 공연 관람경험 유무

- 지난 1년간 순수예술공연 관람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는, '방문경험 있다' 696명(65.9%), '방문경험 없다' 360명(34.1%)로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배 가까이 많았음(<표 4>).

<표 4> 지난 1년간 순수예술공연 관람경험 유무

구분	빈도	비율 (%)
방문경험 있다	696	65.9
방문경험 없다	360	34.1
합계	1056	100.0

○ 주로 이용한 서울의 공연문화시설

- 주로 이용한 공연문화시설은 '예술의 전당' 29.0%, '소극장' 25.5%, '세종문화회관' 16.3%, '국립중앙극장' 6.7%의 순이었으며, 소극장의 경우는 주로 20대 이하와 30대의 젊은 연령층의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표 5> 주로 이용한 서울지역의 문화공연시설 (중복응답)

구분	빈도	비율 (%)
세종문화회관	168	16.3
예술의전당	298	29.0
국립중앙극장	69	6.7
LG아트센터	64	6.2
정동극장	30	2.9
소극장	262	25.5
대학부설공연장	55	5.3
기타	83	8.1
합계	1029	100.0

○ 지난 1년간 순수공연예술에 지불한 관람료 총액

- 지난 1년간 순수공연예술에 지불한 관람료 총액에 대한 질문에는 '연 12만원 미만'(37.9%), '연 12만원~24만원'(22.5%), '연 24만원~48만원'(15.4%),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다'(14.2%), '연 48만원~72만원'(5.6%)의 순으로 응답하였음(<표 6>).

<표 6> 지난 1년간 순수공연예술에 지불한 관람료 총액

구분	빈도	비율 (%)
연 12만원 미만	397	37.9
연 12만원~24만원	236	22.5
연 24만원~48만원	161	15.4
연 48만원~72만원	59	5.6
연 72만원~96만원	17	1.6
연 96만원~120만원	13	1.2
연 120만원 이상	15	1.4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다	149	14.2
합계	1047	100

○ 지난 1년간 순수공연예술 세부 장르별 관람횟수

- 오페라의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38.8%만이 관람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3회 방문'이 36.2%로 발레무용과 함께 가장 낮은 관람횟수를 보여 주고 있음 (<표 7> 참조).
- 클래식 연주도 52.0%만이 관람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3회 방문'이 45.3%로 관람빈도가 낮았음.
- 이에 반해 뮤지컬이나 연극, 각종 전시회는 70~80% 이상이 관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7> 순수예술공연 세부 장르별 관람횟수

구분	오페라		연극		뮤지컬		발레무용		클래식연주		각종 전시회		전체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없다	279	61.2	105	19.6	126	22.4	298	71.5	219	48.0	119	22.9	1146	38.9
1회	128	28.1	212	39.6	218	38.7	77	18.5	125	27.4	178	34.2	938	31.8
2회	26	5.7	125	23.4	127	22.6	20	4.8	59	12.9	112	21.5	469	15.9
3회	11	2.4	49	9.2	47	8.3	10	2.4	23	5.0	52	10.0	192	6.5
4회	5	1.1	14	2.6	21	3.7	0	0.0	7	1.5	17	3.3	64	2.2
5회	2	0.4	8	1.5	9	1.6	2	0.5	6	1.3	10	1.9	37	1.3
6회이상	5	1.1	22	4.1	15	2.7	10	2.4	17	3.7	32	6.2	101	3.4
합계	456	100	535	100	563	100	417	100	456	100	520	100	2947	100

○ 순수공연예술 관람의 주된 이유

- 순수공연예술을 관람한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족, 연인, 친구 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23.9%), '공연내용이 좋아서'(22.3%), '초대권이 생겨서'(22.2%)의 순으로 응답하였음(<표 8> 참조).

- 특히, 관람이유를 '공연내용이나 공연자(연주자)'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29.3%에 달해 비교적 적지 않은 비율이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녀들의 교육이나, 문화수준향상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4.7%, 5.6%였음. 따라서 공연예술 자체를 관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는 비중이 40% 정도라고 볼 수 있음.

<표 8> 순수예술공연을 관람한 주된 이유(중복응답)

구분	빈도(중복응답)	비율(%)
공연내용이 좋아서	257	22.3
공연자(연주자)를 좋아해서	80	7.0
초대권이 생겨서	255	22.2
가족, 연인, 친구 등과 시간을 보내기위해서	275	23.9
친척이나 지인의 추천 때문에	61	5.3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54	4.7
휴일이나 기념일을 뜻 깊게 보내기위해	86	7.5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람	64	5.6
기 타	19	1.7
합 계	1151	100.0

○ 관람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 순수공연예술을 관람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일이 바빠서)' (27.3%), '입장료가 비싸기 때문에'(25.6%), '관심이 없어서'(19.8%), '공연에 대한 정보부족'(14.1%)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주로 경제적인 부담과 공연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연 및 공연관람에 대한 정보 부족 역시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음(<표 9> 참조).

<표 9> 순수예술공연을 관람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구분	빈도(중복응답)	비율(%)
관심이 없어서	112	19.8
입장료가 비싸기 때문에	145	25.6
공연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80	14.1
시간이 없어서(일이 바빠서)	155	27.3
가까운 곳에 공연시설이 없어서	32	5.6
공연 수준이 맞지 않아서	19	3.4
좋은 연주자나 공연단체가 공연을 하지 않아서	6	1.1
마음에 드는 공연작품이 없어서	9	1.6
기 타	9	1.6
합 계	567	100

### 3. 향후 방문의향 및 희망 개선 사항

#### ○ 향후 1년간 순수공연문화시설 방문예정빈도

- 응답자의 88.2%가 향후 1년 이내에 순수공연시설을 방문할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방문예정 빈도에 대해서는 '연 2회', '연 3회', '연 7회 이상', '연 4회' 순으로 응답하였음(<표 10> 참조). 이로 볼 때 순수문화예술에 대한 향수 욕구는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됨.

<표 10> 향후 1년간 공연문화시설 방문 예정 빈도

구분	빈도	비율 (%)
연 1회	52	4.9
연 2회	212	20.1
연 3회	205	19.4
연 4회	99	9.4
연 5회	70	6.6
연 6회	46	4.4
연 7회 이상	141	13.4
방문할 의향이 없다	32	3.0
잘 모르겠다	198	18.8
합 계	1055	100.0

○ 순수공연예술분야 중 선호장르

- 순수공연예술분야 중 선호하는 장르에 대해서는 뮤지컬(36.9%), 연극(29.6%), 각종 전시회(12.2%), 클래식 연주(9.4%), 오페라(8.4%)의 순으로 응답하였음(<표 11> 참조).

<표 11> 순수공연예술분야 중 선호장르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오페라	64	6.2	106	10.7	170	8.4
연극	280	27.1	319	32.3	599	29.6
뮤지컬	480	46.4	266	27.0	746	36.9
발레나무용	26	2.5	43	4.4	69	3.4
클래식연주(국악포함)	101	9.8	89	9.0	190	9.4
각종 전시회	83	8.0	164	16.6	247	12.2
합계	1034	100.0	987	100.0	2021	100

○ 장르별 희망가격

- 장르별 희망가격을 보면, 오페라의 경우 '3만원~5만원' 32.1%, '5만원~7만원' 25.2%로 3만원에서 7만원 사이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뮤지컬, 발레나무용, 클래식연주회는 '3만원~5만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만원~3만원'의 빈도가 높았음(<표 12> 참조). 위의 희망가격은 현재 순수공연예술의 시장가격보다는 낮은 것임.
- 연극은 '1만원~3만원' 58.4% '3만원~5만원' 26.0% 순으로 나타났음.
- 전시회는 '1만원~3만원'이 48.1%, '1만원 미만'이 37.7%였음.

<표 12> 장르별 희망가격

구분	1만원미만		1만원이상 -3만원미만		3만원이상 -5만원미만		5만원이상 -7만원미만		7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오페라	35	4.0	147	16.9	280	32.1	220	25.2	115	13.2	75	8.6
연극	153	9.7	922	58.4	410	26.0	72	4.6	18	1.1	3	0.2
뮤지컬	41	2.9	359	25.8	597	42.9	260	18.7	96	6.9	39	2.8
발레나 무용	57	11.8	124	25.7	155	32.1	111	23.0	30	6.2	6	1.2
클래식연주회	66	8.6	229	29.9	243	31.7	137	17.9	48	6.3	43	5.6
전시회	433	37.7	552	48.1	137	11.9	24	2.1	2	0.2	0	0.0

○ 순수공연예술 관람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 순수공연예술 관람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입장료가 저렴해질 때'(29.5%), '좋은 공연작품과 공연자들이 많아질 때'(24.4%), '소득이 증가할 때'(20.9%), '여가시간의 증가할 때'(20.8%)의 순으로 응답하여<sup>3)</sup> 가격이 관람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표 13> 참조).
- 하지만 1순위 응답은 '좋은 공연작품과 공연자들이 많아질 때'(27.6%), '입장료가 저렴해질 때'(27.5%), '소득이 증가할 때'(23.6%) 순으로 나타나 좋은 작품의 개발과 작품 소개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여가공간과 결합된 복합문화예술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제기되지 않았음.

3) 1순위와 2순위 응답의 전체 합을 말함.

&lt;표 13&gt; 순수예술공연 관람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이 증가될 때	248	23.6	182	18.0	430	20.9
좋은 공연작품과 공연자들이 많아질 때	290	27.6	213	21.0	503	24.4
여가시간이 증대될 때	206	19.6	222	21.9	428	20.8
입장료가 저렴해질 때	288	27.5	320	31.6	608	29.5
여가시설과 결합된 복합공연시설이 증가할 때	15	1.4	69	6.8	84	4.1
기 타	2	0.2	6	0.6	8	0.4
합 계	1049	100	1012	100	2061	100

#### 4. 정책적 시사점

- 전체적으로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순수공연예술의 경우 관람의 경험이나 희망빈도 등의 주요 결정요인이 소득, 연령, 학력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순수예술공연에 대한 관람경험이나 관람희망빈도가 많아짐을 알 수 있었음.
  - 현재의 젊은 층의 소득수준이 향후 증가함에 따라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특히 기성세대와는 달리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관람경험이 좀더 많은 젊은 층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수공연예술을 관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문화공연이 일종의 경험재(experience goods)로서 반복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임.
  - 소득이나 관람료 외에도 공연내용이나 공연자 등도 관람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므로 향후의 공연예술 자체에 대한 질적인 수준 제고도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 순수공연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관람교육 필요성
  - 순수공연예술을 관람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 '관심이 없어서'나 '공연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9%에 달함. 이는 어릴 때부터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임.
  - 관람수요가 적은 주간시간대에 청소년을 위한 각종 순수예술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거나, 정책적으로 순수공연예술 관람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순수예술공연 관람기회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가격대의 폭넓은 공연과 무료 공연 제공이 필요함.
  - 여전히 순수예술공연을 관람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입장료가 비싸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52.9%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순수예술공연에 대한 가격장벽이 여전히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가격대의 공연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무료 공연프로그램을 지속적,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가령, 워싱턴 D.C.의 케네디센터의 경우처럼, 공연이 있는 날 낮시간에 공연시설내의 오픈스페이스(로비 등)에서 소규모 무료 공연을 시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오락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겸비한 문화복합시설이 필요함.
  - 순수예술공연을 관람한 경험이 있는 경우, 23.9%의 응답자가 관람한 주된 이유로, '가족, 연인,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음. 이는 순수공연예술의 관람 목적이 여가 활용에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순수공연

시설 외에도 상업시설과 여타 문화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좀더 적극적인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윤형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31  
younh@sdi.re.kr